

#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6~7)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13:16~17)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20)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8)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1~3)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7~8)

“한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독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가복음 7:21~22)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29~30)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17)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0)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17)

저는 1941년 생으로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흑염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와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들이나 산에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저것은 풀이고 저것은 나무이다. 통칭 그렇게 알고 있었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풀은 약초이고 모든 나무는 약나무인 것을 이곳에 와서 책을 통하여 알았으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인가를 깨닫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식물을 막론하고 우리 토종의 약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우리 토종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겨우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염소도 옛날 토종염소처럼 풀이나 관목을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부채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2,409,000㎡

(73만평)의 산을 매도하려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노력하였지만 산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의 주제는 산이 팔려 부채가 청산되고 노년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째 기도를 드렸지만 산이 팔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이 팔릴 때까지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기도시간에 마음에 깨우침이 왔습니다.

풀만 먹고 살 수 있는 염소를 300~400마리를 가지고 있고 산과들에 널려있는 것이 풀이고 나무이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2,409,000㎡(73만평)의 산에는 너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도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흑염소가 가축 중 가장 약성이 높았던 것은 주식이 약초, 약나무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풀은 지구가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기에 토종화된 염소의 사료걱정은 달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식당을 하는 것, 염소로 만든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간식을 개발하는 것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같이 해보시려는 신앙인이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락처 : 010-3204-3407